고흥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사업 선정 사업비 39억 확보
2GW 규모 계획입지 발굴 착수
에너지 연금 등 군민 설득 설명회

고흥군이 지난 11일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14억5000만원과 군비 25억원 등 총사업비 3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7년까지 최대 2G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와 군이 협력해 해상풍력 단지의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단지개발을 목표로,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국비 35억원)'과 연계해 세계적인 해상풍력 개발 체계인 '해상풍력 계획입지'의 국내 첫 시범지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주도 방식의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과 어민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고흥군은 지난해 3월 '4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군민 에너지 연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1년간 50회 이상의 해상풍력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 확보에 힘써왔다.

이처럼 고흥군의 단지개발 사업은 민간 위주의 발전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지역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 중심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역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기업을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산단 내 RE100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과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에너지 안보 정책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전남 동부 해역의 중심에 위치해 주요 해상풍력단지와 송전망 대부분이 경유하는 남해안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에 해당한다"며 "타 시군과도 협력을 통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광역권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순천만국가정원이 지난 15일 개장 이후 처음으로 반려견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펫데이 이벤트'를 개최했다.

반려견과 함께 순천만정원 거닐며 힐링

전국 반려인 '펫데이 이벤트'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이후 처음으로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산책할 수 있는 '펫데이 이벤트'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번 '펫데이 이벤트'는 정원 남문 일원과 스페이스 허브 구간에서 펼쳐졌으며, 전국에서 모인 반려인 200명과 반려견 150마리가 함께 정원의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 당일에는 '반려견 이동진료소', '가족 손도장·발도장 체험', '반려쉼터-개우소' 등 다양한 반려친화형 시설과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남 최초의 반려견 전용 열차 상품인 '순천 댕댕트레인'과 연계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순천 댕댕트레인'은 서울·대전·익산 등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모집된 반려인과 반려견이 전용 열차를 타고 14·15일 이틀간 '천만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 순천드라마촬영장, 와온해변 등 순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반려여행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와함께 '백문이불여일犬, 순천만국가정원 犬과함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반려가족이 한나절 동안 정원 속에서 여유롭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늘은 순천만국가정원이 반려동물에게 처음으로 문을 연 뜻깊은 날"이라며, "순천시는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남 최초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관하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문화축제 운영 등 반려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지리산 케이블카 정책 전환하고 구례 노선 승인하라"

구례 추진위원회 촉구 결의대회

지리산 케이블카 정책 전환과 구례 노선 승인 촉구 결의대회가 지난 12일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열렸다. 〈사진〉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주최·사)지구촌환경보존복지연합 구례군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구례지회 등 26개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환경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케이블카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해 국립공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는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등 구례군의 핵심 전략이다"면서 "기존 단일 노선 원칙 고수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2012년 지정된 삭도시범사업 대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 ▲비현실적인 단일 노선 원칙을 폐지할 것 ▲삭도시범사업이 미시행된 지자체를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 전환 관련 내용을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반드시 공유할 것 등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구례군은 설악산·소백산 등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연대해 국립공원 정책의 합리적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례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적 가치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임을 재차 강조했다.

추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가 환경정책 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몰 24일까지 곡성멜론 30% 할인 행사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몰'에서 이달 24일까지 '곡성멜론 최대 30% 할인' 행사를 갖는다.

이번 할인 행사는 곡성 멜론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곡성멜론(주), 곡성농협, 대신영농조합법인, 로와농장 4개 업체가 참여해 고품질 멜론을 선보일 예정이다.

곡성멜론은 섬진강변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 큰 일교차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한 넝쿨에 한 과만 재배하는 원칙을 지켜 영양분을 집중시키며, 비파괴 당도 선별을 통해 13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멜론을 출하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곡성멜론은 지난 202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 인증을 국내 멜론 산지 최초로 획득하며 품질과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무료 운영

윈드서핑·스킨스쿠버 등 8개 종목

여수시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오는 9월 7일까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체험 종목은 윈드서핑과 카약, 카누,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수상자전거, 딩기요트, 크루저요트 등 8개 종목으로 전문 강사의 교육(안전과 이론·장비 등)과 함께 체험이 진행된다.

여수요트학교와 해양레저스쿨, 스킨스쿠버교실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체험 장소는 소호요트마리나(여수요트학교)와 웅천해수욕장(해양레저스쿨, 스킨스쿠버교실), 여수세계박람회장(해양레저스쿨) 등 3개소이다.

참가 신청은 여수시 OK통합예약과 전화예약, 당일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사전예약은 체험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다. 프로그램별 체험 장소와 예약 방법, 연령 제한이 상이해 반드시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강습료와 장비 대여료는 모두 무료이며, 편의시설(샤워장, 물품 보관함) 사용료는 여수시민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할인된다.

체험 참가자는 물빠짐이 좋은 옷과 아쿠아슈즈, 모자, 선크림, 여벌옷 등을 준비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및 예약은 여수요트학교(061-685-8220), 해양레저스쿨(061-686-0591, 070-8837-1004), 스킨스쿠버교실(061-641-0122)로 연락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아름다운 여수의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올 여름은 여수에서 시원하고 짜릿한 해양레저스포츠를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옥수수 농가 열대거세미나방 방제 당부

보성군은 옥수수 등 주요 화본과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거세미나방의 성충이 관내에서 올해 처음 발견됨에 따라, 옥수수 재배 농가에 적기 방제 및 정밀 예찰을 당부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비래 해충으로, 올해 4월 21일 제주도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보성군에서는 5월 28일에 첫 성충이 발견됐다.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은 옥수수와 수수, 벼 등 화본과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고, 열매 안으로 파고 들어가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상품성 및 수확량 감소 등 큰 피해를 유발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